

마을공동체에서 개신교회의 역할

- 마을목회를 중심으로 -

정 원 범*

목 차

I. 들어가는 말	IV. 마을목회의 세계적 사례
II. 마을목회의 출현배경	V. 마을목회의 과제
III. 마을목회의 의미와 신학적 근거	VI. 나가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21세기 목회의 대안으로 떠오른 마을목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아울러 마을목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마을목회의 출현배경을 설명하고, 3장에서 마을목회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 4장에서 마을목회의 세계적인 대표 사례들을 통해 마을목회를 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5장에서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마을목회의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 필자는 마을목회의 출현배경으로 ① 주류 기성교회들의 쇠락 ②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③ 생태, 기후위기를 설명하였고, 3장에서 “마을목회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나라의 가치(자유, 평등, 생명, 정의, 사랑, 평화 등)를 마을(지역사회, 지구마을)에서 구현해가는 목회”라고 정의하면서 필자는 마을목회를 해야 하는 신학적 근거로 ① 신론적 근거 ② 기독교론적 근거 ③ 교회론적 근거 ④ 선교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4장에서 마을목회의 세계적인 대표 사례들, 즉 ① 미국의 세이비어교회 ② 미국의 드림센터 ③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 ④ 한국의

* 대전신학대학교 은퇴교수

논문접수일 : 2022. 5. 09. 논문심사일 : 2022. 5. 20. 게재확정일 : 2022. 6. 14.

한남제일교회의 사례들을 통해 마을목회를 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이들 교회들의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했다.

5장에서는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마을목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영성목회의 과제 ②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목회의 과제 ③ 사회적 약자들을 온갖 억압과 착취와 불의에서 자유롭게 하는 해방목회의 과제 ④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과제 ⑤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랑목회의 과제 ⑥ 마을의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돌보는 복지목회의 과제 ⑦ 생태계를 살리는 생태목회의 과제 ⑧ 생명·평화의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목회의 과제

마을목회는 개신교의 위기를 초래한 두 가지 원인, 즉 교회 본질의 상실과 목회패러다임 전환의 실패에 대한 좋은 처방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마을목회는 교회 본질의 핵심 요소인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회이며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는 목회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목회는 사회통합 기능, 사회적 목표의 고양, 사회변혁 기능과 같은 종교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는 과거의 교회중심적 목회에서 지역사회중심의 마을목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마을목회,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 마을공동체, 사회적 약자, 영성목회, 행복목회, 해방목회, 생태목회

I. 들어가는 말

188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인천에 도착하고, 1885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인천에 도착한 이래 초기의 한국교회는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사회변혁의 큰 원동력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광수는 1917년 청춘지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첫째로, 기독교는 어두운 한국사회에 구미의 새로운 문명을 제일 먼저 도입하여 문명개화와 자유인권의 선구자가 되었다. 둘째로, 전국적 규모의 민족교회를 창건하여 민중에게 신앙의 복음을 전파하고 인격과 자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덕을 고창했다. 셋째로, 많은 학교와 병원과 봉사기관을 세워 민족교회와 사회복지에 공헌했다. 넷째로, 폐창(廢娼)운동, 금

주금연의 절제운동을 위시하여 사회개혁을 하였다. 다섯째로, 민족의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민족사상을 고취하였다. 여섯째로, 성서와 찬송가의 간행으로 문맹타파에 선봉이 되었다. 일곱째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 농촌계몽운동의 전위적 기수의 역할을 담당했다.¹⁾

이렇게 아름다웠던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가 오늘날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2021년 1월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인 반면 ‘별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당시 같은 질의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매우·약간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은 32%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에서 개신교인 중 신뢰한다는 비율은 70%였으나 비개신교인은 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²⁾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1884년 이후 개신교 선교 초기의 한국교회가 반상의 제도와 같은 봉건폐습을 변화시키며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는 교회 본질의 상실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패러다임 전환의 실패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마을목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목회는 교회 본질의 핵심 요소인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목회이며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는 목회이기 때문이다.

오데아에 따르면, 종교는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증법적인 특성을 가진다. 종교는 피착취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동일한 작용으로 인하여 필요한 변화와 적응을 저지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종교는 기존 사회의 규범을 신성화함으로써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바로 그 과정 때문에 종교는 규범을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도록 그 기능을 유지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역기능은 사회상황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때 나타난다.³⁾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한국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종교의 순기능보다는 종교의 역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교회의

1) 김병서,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5), 164-165쪽.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79.html>

3) 토마스 F. 오데아, 권규식 역, 『종교사회학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85쪽.

이런 역기능은 21세기 문명 전환의 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신뢰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한국교회가 현재 보이고 있는 개신교의 역기능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그 역기능의 모습을 탈피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종교의 사회통합 기능⁴⁾과 사회변혁 기능과 같은 순기능, 예를 들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기독교의 순기능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둘째는 21세기 문명의 전환 상황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도록 교회패러다임과 목회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해법으로 최근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을목회이다.

마을목회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론적인 연구이고, 둘째는 모델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연구이고, 셋째는 이론과 모델 사례들을 함께 연결하여 분석하는 통합적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마을만들기 모델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조용훈의 논문인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교회의 역할,”⁵⁾ “마을만들기와 마을목회를 선교의 관점, 특히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의 관점에서”⁶⁾ 연구한 논문인 황홍렬의 “마을만들기, 마을목회와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선교적 접근 방식으로 선교적 교회를 다루고 이 둘이 어떻게 조율하게 되는가를 사례 중심으로”⁷⁾ 연구한 논문인 한국일의 “마을만들기와 지역교회 역할: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과 마을만들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농촌교회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에 대하여”⁸⁾ 연구한 정재영의 논문인 “생명공동체

4) 여기서 “통합이란 균형잡힌 체계로서 전체성이 조화되고 유지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뒤르켐은 “종교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들과 도덕적 의무감을 마련해줌으로 사회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종교는 항상 사회적이며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며 인간들을 이기적 집착에서 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초월하는 사회적 실재에 대하여 굴복하도록 양육한다.”고 주장한다.<이원규,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18쪽.>

5) 조용훈,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서울: 동연, 2017), 27-48쪽.

6) 황홍렬, “마을만들기, 마을목회와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 강성열·백명기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6), 134쪽.

7) 한국일, “마을만들기와 지역교회 역할: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해석학연구소·농어촌연구소 편, 『마을만들기와 생명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2013), 95쪽.

8) 정재영, “생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을만들기,” 위의 책, 68쪽.

를 추구하는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목회를신학적, 성서적으로 연구한 정경호의 “마을목회신학을 향하여”⁹⁾와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마을목회를 연구한 성석환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등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가 마을목회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점은 1장에서 마을목회의 출현배경을 다루고 2장에서 마을목회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3장에서는 마을목회의 세계적인 대표 사례들을 소개한다는 점이고, 4장에서 마을목회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필자는 21세기 목회의 대안으로 떠오른 마을목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신교의 역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마을목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마을목회의 출현배경

1. 주류 기성교회들의 쇠락

오늘날 개신교의 주류교회들을 보면, 서구교회이든, 한국교회이든 교인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영국교회의 쇠락에 대해 에디 깁스는 “그런 변화와 함께 영국인들도 급속히 교회와 멀어져 갔다. 지난 사십년 동안 교회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교회가 사회적 힘을 상실하자 그 영적인 피폐함도 드러났고, 두려움만 자리를 잡고 있다.”¹⁰⁾고 하였고, 미국교회의 쇠락에 대해 필립 클레이튼은 “현재 미국의 주류교회들은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종교적 삶의 표준이었던 이들 교회들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교인의 감소를 경험하였고, 많은 주류교단에서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많은 교회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오늘날 존재하는 주류 교회의 반 이상이 향후 20년 안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¹¹⁾고 하였다.

쇠락의 현상은 시차가 있을 뿐, 한국교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뉴스엔조이는 개신교의 쇠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교인 수가 2020년에만 40만 명 가까이 줄어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9) 정경호, “마을목회 신학을 향하여,” 오필승 편, 『마을목회신학과 실천』 (홍성: 예장마을만들기 네트워크, 2017), 23-35쪽.

10) Eddie Gibbs, 임신희 역, 『Next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8쪽.

11) Clayton, Philip, 이세형 역,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2), 116쪽.

년 9월 주요 장로교단 총회에 보고된 통계를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7만 3378명 감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1만 4066명 감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1만 750명 감소, 한국기독교장로회 7594명 감소로 장로교단 4곳에서만 30만 명이 빠졌다. 여기에 2021년 5월 교세를 공개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5만 6729명 감소했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3만 741명 감소했다. 교단 6곳의 교세를 더하면, 총 교인 수는 703만 8298명으로 전년 대비 39만 4618명이 감소했다. 백분율로 보면 전년 대비 교단 6곳 성장률 평균은 -5.3%이었다. 기성이 -7.4%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예장합동이 -6.8%, 예장통합 -4.6%, 감리회 -4.4%, 기장 -3.6%, 고신 -2.6% 순이었다.”¹²⁾

이러한 교회 쇠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교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로 마을의 필요에 부응하는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목회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목회는 초기 한국교회와는 다르게 주로 교회 울타리 안의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였고,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중심적인 목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중심적인 목회를 탈피해서 교회가 교회 자신의 필요와 성장이 아니라 마을의 필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로 전환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도 자연스럽게 활력을 얻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이다. 2021년 12월 7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소득, 부, 성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BBC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¹³⁾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현재 상위 소득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8%에 불과하다. 1995년 이후 억만장자의 재산은 1%에서 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는

12)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79>

13)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545136>

더욱 심해졌다. 2020년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점유율이 역사상 가장 파르게 증가한 해”였다고 밝혔다. ... 세계 상위 1%는 1995년 이후 축적된 부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반면, 하위 50%에게는 2%만 주어졌다. 루카스 쉐슬 WIL 공동 소장은 AFP 통신에 “코로나19가 1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억만장자들의 부는 3조 6000억유로(약 4776조5520억원) 이상 증가했지만, 1억 명은 극빈층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극빈층이 지난 25년 동안 감소해왔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2021년 전 세계 성인의 평균 소득은 1만 6700유로(약 2216만원)였고 평균 자산은 7만2900유로(약 9672만원)였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소득 분포 상위 10%는 연간 8만7200유로(약 1억1568만원)를 벌고 있다. 하위 50%는 연간 2800유로(약 371만원)을 벌다. 가장 가난한 하위 50%는 전 세계 부 2%만 차지하고 있는 등,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었다. 상위 10%가 모든 부의 76%를 소유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2명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매년 9.2%씩 부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이는 다른 집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장 지글러도 세계의 빈곤상황에 대해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 인구 중 10억 명이 심각하고도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신음하고 있다. ... 4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비타민 A 결핍으로 시력을 잃고 있고,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5초마다 1명씩 기아로 사망한다.”¹⁴⁾고 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소수의 엄청난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연합뉴스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빠르게 도입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고용 없는 저성장의 와중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¹⁵⁾고 지적하였다.

농촌의 상황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코로나 장기화, 농업 소득 정체에 따른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만성적 노동력 부족, 잇따른 가축질병 발생, 기후 위기 등으로 농촌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붕괴나 도시의 양극화현상은 급속한 산업화 이후 나타난 것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해 농촌과 도시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

14) 장 지글러, 유명미 역,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17), 30쪽.

15)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11000002>

다. 이에 따라 1970년대부터 농촌이나 도시빈민들의 삶을 살리기 위한 빈민운동 같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를 전후해서 참여연대가 주도해온 ‘아파트 공동체 운동’과 ‘아파트 시민학교’를 비롯해, 각 지역 YMCA가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과 ‘마을학교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의 여러 행정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개되었다.¹⁶⁾

이렇게 정부, 지자체, NGO, 지역주민들에 의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극심한 빈부 격차, 사회양극화로 인해 무너지는 마을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한 자연스런 응답이었고, 교회 역시 마을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을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를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을목회이다.

3. 생태, 기후위기

오늘날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 상황이 지구생태계 붕괴의 서막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영국 남극자연환경연구소(BAS)는 과학 저널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한 논문에서 “앞으로 15년 후에는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버릴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IPCC는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극한 폭염은 8.6배, 집중호우는 1.5배, 가뭄은 2.4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5년 파리협약은 기후재앙의 마지노선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상승 이내로 막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므로 지금의 기후위기야말로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회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지구를 돌보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환경선교적, 생태윤리적 과제임을 자각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마을목회를 펼쳐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촌교회의 경우 마을의 농업이 EM(유용한 미생물군)농업, 오리농법 등의 친환경농업을 하게 해서 마

16) <https://yum8209.wordpress.com/2013/10/29/%EB%A7%88%EC%9D%84%EB%A7%8C%EB%93%A4%EA%B8%B0%EC%9D%98-%EB%B0%B0%EA%B2%BD/>

율이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는 일을 돕기도 하고, 도시교회의 경우 교회마당에 정원을 가꾸거나 마을을 푸르게 하는 일을 하는 등 생태적 마을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

III. 마을목회의 의미와 신학적 근거

1. 마을목회의 의미

먼저 마을의 의미와 목회의 의미를 살펴보자. “사전적으로 ‘마을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등에서 소수의 집이 집단을 이루는 형태를 지칭하고 있지만, (국어대사전) 현장 활동에서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사회적 범위’로 ‘물리적인 범위가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사는 공간’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 필자는 “2015 전국 마을선언”의 입장에 따라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¹⁸⁾이라고 정의한다.

국어사전에서 목회란 “기독교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하거나 신자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등 공식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필자는 2014년 『생명운동과 생명목회』에서 목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달리 말하면 독일어에서 목회를 Seelsorge(영혼에 대한 염려)라고 말하듯 목회란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돌보는 일이다.

다음으로 마을목회란 무엇인가? 한국일은 “마을목회란 잃어버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기초로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다.”¹⁹⁾라고 하였고, 황홍렬은 “마을목회는 목회자가 교회의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를 넘어서서 교회/기독교 기관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을의 주민들과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모습·마을을 살리는 학교, 마을기업, 마을을 살리는 문화, 생태

17) 2015 전국 마을선언 <황영모·이현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현황과 활성화 전략 정책의 통합·연계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슈브리핑』 vol.150, (전주: 전북연구원, 2016), 4-5쪽.

18)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2012), 10-11쪽.

19) 예장마을만들기네트워크, 「마을만들기를 위한 신문자료집」 (홍성: 마을목회연구소 「농촌」, 2016), 25쪽.

마을, 마을을 살리는 생활정치 등-으로 돌보고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마을에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목회를 가리킨다.”²⁰⁾고 정의하였다. 요컨대 마을목회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나라의 가치(자유, 평등, 생명, 정의, 사랑, 평화 등)를 마을(지역사회, 지구마을)에서 구현해가는 목회라고 할 수 있다.

2. 마을목회의 신학적 근거

1) 신론적 근거

첫째로, 기독교의 목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마을목회(지역사회목회, 한국사회목회, 지구마을목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구적이고 우주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사회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²¹⁾ 기독교의 목회 역시 사회적이고, 사회참여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동안 교회성장만을 추구했던 개교회주의적이고, 교회중심적인 목회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과 신음하고 있는 피조세계의 탄식에 귀기울이며 깨어진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지구생태계를 살리는 마을목회를 실천해야 한다.

2) 기독교론적 근거

둘째로, 기독교의 목회가 마을목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목회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예수의 사역은 로마제국의 억압과 로마의 대리통치자들의 착취로 인해 해체되어가던 마을공동체를 나눔과 협동과 상호돌봄의 새로운 마을공동체로 새롭게 갱신하는 사역이었다.²²⁾ 리처드 호슬리는 “갈릴리와 기타 마을들에서 펼친 예수의 선교는 제국의 폭력이 가져온 결과들을 치유하고, 제국적 질서의 영향으로 해체되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정신과 협동정신을 새롭게 불러 일으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²³⁾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의 사역이 회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기독교의 목회 역시 마을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0) 강성열·백명기 편,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159쪽.

21) Kenneth Leec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2009), 24쪽.

22) Richard A. Horsley, *Jesus and Empire: The Kingdom of God and New World Disorder*, 김준우 역, 『예수와 제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190-210쪽.

23) 위의 책, 208쪽.

3) 교회론적 근거

셋째로, 기독교의 목회가 마을목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교회의 존재목적이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세상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다. 본회퍼가 말한 대로,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는 교회이다.”²⁴⁾ “교회가 자신의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는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종교단체’가 되고 하나님과 세상의 교회이기를 그치게 된다.”²⁵⁾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마을을 섬기는 마을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4) 선교론적 근거

넷째로, 기독교의 목회가 마을목회가 되어야 하는 근거는, 기독교의 선교가 교회를 부흥 성장시키려고 하는 교회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전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가 구현되어야 한다면, 하나님나라 구현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의 목회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인 마을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IV. 마을목회의 세계적 사례

1. 미국의 세이비어교회

세이비어교회는 2차 대전 후에 고든과 메리 코스비에 의해 1947년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교회의 인원이 150명을 넘은 적이 없는 작은 교회이면서도 거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 중의 하나로 매년 수백 명의 방문객이 찾아

24) ed. John W. de Gruchy,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217.

25) Larry L. Rasmussen,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1972), p.21.

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있는 교회이다. 교회인원은 150명 정도로 작은 교회이지만 사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2천만 달러 이상(200억 원 이상)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이다.

1) 세이비어교회의 꿈

세이비어교회의 꿈은 각각의 교회공동체가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서 함께 안으로의 여정과 밖으로의 여정에 대한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각각의 공동체는 각자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깊은 헌신의 전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전통, 지역에서 섬기는 사역의 전통을 공유한다.²⁶⁾ 윌리엄 할레이(William R. L. Haley)는 세이비어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²⁷⁾

세이비어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장 문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더욱 진지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삶에서 깊이를 갈망한다면 아주 작은 몇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길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믿음으로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전 생애를 그 깊은 탐험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의 형상을 닮기 원합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갖기 원하는 그 형상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 사역의 특징

세이비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헌신을 하는 공동체교회, 즉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세이비어교회는 관상기도의 친밀한 삶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세이비어교회가 벌이고 있는 열정적인 사역이나 사업에 관심을 갖지만, 세이비어교회가 강조하는 것

26) <https://inwardoutward.org/>

27)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05), 15-17쪽.

은 개인의 영적 기도이다. 세이비어교회 교인들은 매일 1시간씩 침묵기도를 하고, 1년에 두 차례 각각 3박4일간 침묵수련회도 갖는다. 둘째로, 세이비어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이비어교회 교인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 일정한 훈련을 거쳐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데 정식입교서약문을 통해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하게 한다.²⁸⁾

셋째로, 제자훈련을 강조한다. 세이비어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학교’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²⁹⁾ 세이비어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 섬김의 리더십 학교를 두고 있는데 이 학교가 추구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란 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② 예수님의 공화하심을 실천하며, ③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④ 구체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개선에 헌신하며, ⑤ 더 나아가 용기 있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⁰⁾

넷째로, 섬김의 사역을 강조한다. 세이비어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공동체 모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공동체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땅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이다. 여기서 증인 공

28) 위의 책, 46-47쪽.

•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내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을 약속하며 나의 삶과 운명을 예수 그분께 맡깁니다.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입니다. •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재물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남에게 베풀 때에 후하고 거리낌 없이 베풀겠습니다. • 나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맡기겠습니다. •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룹을 사랑하며, 모든 계층, 인종 그리고 나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분쟁, 공적인 다툼과 전쟁을 끝마치기 위하여 화해의 삶을 사는 중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 구약성서, 신약성서, 기독교 교리, 기독교윤리, 그리스도인의 성숙 등의 5과목을 들어야 하는데 대개 2-3년이 걸린다.

30) 위의 책, 72-73쪽.

제자훈련이란 리더십 훈련이든 세이비어교회가 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안락함, 외모를 꾸미는 일, 돈, 권력, 명예 등에 중독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비워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동체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역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세이비어 교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그룹 사역공동체의 핵심철학은 6가지이다. ① 참된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외적표현이다. ②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 ③ 참된 교회는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④ 참된 교회는 화해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다. ⑤ 참된 교회는 자기 삶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과도 삶을 나눈다. ⑥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한다.³¹⁾

세이비어교회가 사역공동체로서 헌신하기 위해 네 가지 영역, 즉 변화, 증거, 양육, 활동을 강조하는데 네 번째로 말하는 활동 영역이 바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마을목회에 해당된다. 세이비어교회의 마을목회 사역은 목회자가 중심이 되고 평신도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사역인데 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상처받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의미한다.³²⁾ 다시 말해 이 사역은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한 한 명 또는 소수의 핵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비록 두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래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이비어교회의 소그룹 사역공동체는 각자 독립성을 가진 교회 내의 작은 교회(현재는 8개 교회)라고 할 수 있다.³³⁾ 세이비어교회와 연관된 사역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40개가 넘는 사역들 중 대표적인 사역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거사역

- 회년주거사역: 저소득 지역주민만을 위한 교육 및 아파트 임대사역
- 만나 지역개발: 저소득 주민들이 소득에 맞게 주택을 소유하도록 하는 사역
- 미리암의 집: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성들을 위한 주거시설
- 요셉의 집: 남성 노숙자들을 위한 요양시설
- 사마리아인의 집: 마약, 알콜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위한 치료 및 주거시설
- 베다니의 집: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 가족들을 위한 주거사역
- 사라의 집: 노인들을 위한 주거사역
- 카이로스의 집: 노숙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임시로 머무르는 주거시설

31) 유성준, 『세이비어교회- 실천편』 (서울: 평단문화사, 2006), 27-31쪽.

32)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169-174쪽.

33) 세이비어교회는 본부 교회 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셀그룹들도 독립된 교회로 인정한다.

- 방주의 공동체: 지체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라르쉬 공동체
- 안드레의 집: 세이비어교회 방문자들을 위한 주거시설

② 치유사역

- 콜롬비아 로드 진료소: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치료시설
- 그리스도의 집: 노숙자를 위한 치료시설

③ 영성사역

- 토기장이의 집: 워싱턴에서 처음 시작한 커피 하우스 및 서점
- 여명수양관: 침묵기도를 위한 수양관
- 웰스프링 컨퍼런스 센터: 침묵수양관과 같은 지역에 있는 세미나 또는 수련회를 위한 시설
- 물질사용에 대한 수련회: 물질과 신앙과의 연관과 제3세계에 관한 수련회
- 추수의 시대: 가난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부를 나누는 사역

④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사역

- 선한 목자 사역: 유치원생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방과 후 학생 사역
- 패트리샤 사이타 예능교실: 방과 후 예능교실
- 가족의 장소: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 어린이사랑 모임: 불우 어린이들을 양부모로서 돕도록 지원하는 모임
- 행동하는 예술: 사 혹은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예능교실

⑤ 취업보조와 성인교육 사역

- 희망의 아카데미: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원
- 회년 직업소개 사역: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센터

“15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언급했지만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헌신(예수님에게 올인하고자 하는 헌신의 깊이) 과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은 세이비어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삶의 모든 부분을 그분에게 드리하고자 하는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 결론적으로 세이비어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전제로 내면을 향한 여정(내적인 영성)과 세상을 향한 여정(외적인 사역)과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여정(공동체적 영성)이 균형을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교회로서 마을 목회의 훌륭한 모델교회라 할 수 있다.”³⁴⁾

2. 미국의 드림센터

1) 드림센터의 꿈

드림센터는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3대 교회 중 하나인 타미 바넷 목사의 아들인 매튜 바넷에 의해 1994년(20살)에 시작된 교회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아서 채워주며 상처받은 자들을 찾아 치유해주자’란 슬로건 하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이다. 24시간, 주 7일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루는 교회 사무실 앞 길거리에서 자신의 책상과 의자를 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물어보면 ‘이 근처에 새로 개척한 교회의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와 보세요.’ 라고 답하곤 했다. 어느 날 지나가던 행인에게 똑같이 답하던 매튜 목사에게 그는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내가 사는 동네에 와 보라는 도전을 받고 그를 따라갔을 때 매튜 목사가 본 것은 도심에 사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대도시의 저소득층이 사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 매튜 목사는 얼마 후 몇몇 안 되는 교인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이면 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필요한 대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거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낡은 집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것, 동네 아이들과 재미있는 놀이시간을 갖는 것, 고장 난 수도 파이프를 고쳐주고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이러한 사역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했으며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³⁵⁾

물론 대부분의 성도는 거리의 노숙자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매튜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는 이웃 주민들에게 정성스런 선물을 나눠주기도 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만일 네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 나는 너에게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으로 인해 그는 더욱 더 세상의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 날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상훈은 이렇게 전한다.

34) 정원범, 『새로운 교회운동: 교회 패러다임의 혁명』 (논산: 대장간, 2016), 85-86쪽.

35) 『LA중앙일보』, 2005.3.4.

그날 이후로 그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생겼다. 밤이 되면 슈퍼마켓으로 가 최대한 많은 식료품을 산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실패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웃의 문을 두드린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리면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젊은 목회자의 방문에 놀라고, 그가 전해주는 선물 꾸러미에 또 한 번 놀란다.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었다. 이웃 주민들을 위해 교회 마당에 농구장을 짓고 주차장 한 가운데 운동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매일 밤 수백 명의 갱 단원들과 그 가족들이 코트에 나와 농구를 하고,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고, 벤치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었다. 변화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일어났다. 저녁이 되고 일과를 마치면 자원봉사자들이 나와 갱 단원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했다! 교회는 더욱 부흥했고, 교회의 부흥은 지역 공동체에 생기가 넘치게 했다.³⁶⁾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대한 열정이 보다 구체화된 계기는 예배 후 자신을 찾은 홈리스와의 대화 때문이었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밤 다시 추운 거리로 돌아가서 마약과 술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장소를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³⁷⁾ 그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의 16채 집을 차례로 사들여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한 회복 센터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게 되자 건물의 공간이 점점 비좁아졌는데 이 문제는 프란치스코수녀회 소유의 병원건물(15층 빌딩을 포함해 총 9동의 건물, 시가 1,600만 달러)을 수녀회로부터 390만 달러에 넘겨받음으로써 해결되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수녀회가 드림센터의 특별한 꿈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에게는 1,600만 달러의 거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도망친 매춘부들, 거리의 아이들, 집 없는 홈리스들과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24시간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³⁸⁾

이렇게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을 24시간 섬기려는 꿈, 즉 “이 지역에서 연중무휴의 늘 깨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즉 결코 잠들지 않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회가 되”³⁹⁾고자 하는 꿈으로 시작된 “드림센터는 매년 수천 명의 자원봉

36) 이상훈, 『Re_Form Church』, 83-84쪽.

37) 위의 책, 84쪽.

38) 위의 책, 85쪽.

39) www.c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1

사자가 찾아와 2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매주 5만 명의 사람을 섬기고 있다. 또한 약 600명의 사람이 거주하면서 재활과 훈련, 봉사를 하고 있다.”⁴⁰⁾

2) 사역의 특징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을 24시간 돌보고자 하는 비전에 따라 드림센터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첫째는 Adapt-A-Block 사역이다.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라. 상처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라”는 철학 아래 매주 토요일 아침 5-600명의 봉사자가 135개 이상의 구역을 섬긴다... 매주 약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이처럼 정기적인 사역은 주민들과 봉사자들 사이에 신뢰를 형성하여 약 천 오백 명 이상의 비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로 나타났다.”⁴¹⁾ 둘째는 홈리스 사역이고, 셋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구제사역(푸드 채플, 푸드 트럭, 푸드 बैं크 사역 등)이며, 넷째는 이동 의료사역, 직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커리어 개발 사역, 아동위탁사역, 가정회복사역, 마약중독자들과 출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사역 등을 포함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고, 다섯째는 인신매매 피해자 갱생 사역이며, 여섯째는 홈리스들, 중독자들, 폭력전과자들의 변화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춘 제자훈련 과정, 일곱째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 과정, 여덟째는 섬김 사역에 참여한 젊은이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리더십 학교 등이다. 이런 사역을 통해 과거 가장 범죄율이 높던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50개 도시 중 하나로 변모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수 없다.⁴²⁾

3.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운동하면 개인구원, 성령체험을 강조하며 내세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최근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성령운동 집단은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도날드 밀러교수는 이러한 성령운동 교회를 선진적 성령운동 교회라고 부른다. 도날드 밀러와 테쓰나오 야마모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의 20개국을 방문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의 실상을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

40) 이상훈, 『Re_Form Church』, 85쪽.

41) 위의 책, 86쪽.

42) 정원범, 『새로운 교회운동: 교회 패러다임의 혁명』, 189-190쪽.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보고한 바 있다.

1)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의 꿈

전통적인 성령운동 교인들은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영적인 측면에 우선권을 두는데 반해 선진적 성령운동 교인들은 인간의 영적인 요구와 물질적, 경제적 필요,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꿈은 영적 체험 즉 성령 체험,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 개인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지역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⁴³⁾ 이 점에서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은 마을목회의 훌륭한 모델사례가 되고 있다.

2) 사역의 특징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은 성서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회참여 사역을 다양하게 실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창녀들을 돌보며 눈먼 자를 보게 하러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모델을 따라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의 영적인 요구와 물질적 요구,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집이 없고, 아픈 상황인데 영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음식이나 약이 떨어진다면, 그들은 처음 구제 물품을 받던 때와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따라서 그들 가운데는 단순히 자선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지 않은 교회들은 개발지향적인 사회참여나 지역사회의 재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혁을 추구하기도 한다.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공활사역: 음식과 옷과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 2. 긴급 비상사역: 홍수와 기근과 지진에 대처하는 것, 3. 교육사역: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를 설립하고, 학비를 보조하는 것, 4. 상담사역: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이혼자, 낙심자들

43) Miller Donald E, 아마모리 데쓰나오, 김성건, 정종현 역.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3쪽.

44) 위의 책, 80쪽.

을 돕는 것, 5. 의료지원 사역: 진료소와 치과를 세우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6. 경제개발 사역: 소규모 사업 대부, 직업 교육, 주택 제공, 7. 예술 사역: 음악, 춤, 드라마 교육, 8. 사회정책 변화 사역: 부패를 막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며, 최저 임금제를 지지하는 것 등이다.⁴⁵⁾

특히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은 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살리고 세워가는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우간다에서 에이즈는 2백만 명의 고아들을 양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캄팔라 오순절교회는 고아원을 짓는 대신 혁신적인 시도를 구상했는데 여러 채의 집들을 지어 마을을 건설한 것이다. 한 마을의 경우 25개의 집을 지어 200명의 아이들을 수용했는데 이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과부나 이혼한 여성이 가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1주일에 한 번 아버지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보내어 아이들과 대화도 해주고, 숙제를 돌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일을 하게 했다. 또 1주일에 한 번씩은 의사가 그 마을에 와서 진료활동을 펼침으로써 각 가정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있다. 캄팔라교회의 담임목사인 스키너목사와 그의 아내는 1년에 4개월 동안 1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북미와 유럽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 케냐의 나이로비 오순절교회 역시 버려지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짓고, 교실을 마련하며 직업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진료소를 개원하며, 예배당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임 장소 등을 마련하는 일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다.”⁴⁶⁾ 거리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은 인도, 요하네스버그, 카이로, 베네주엘라의 카라카스, 마닐라 등의 여러 교회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순절교회를 포함하여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교회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섬기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사회라고 하는 더 큰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이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교회들은 단순히 구호활동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교회는 아이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를 재조직하는 식의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들이 중요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회선교의 원동력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활기와 영혼의 기쁨이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사회

45) 정원범, 『새로운 교회운동: 교회 패러다임의 혁명』, 114쪽.

46) 위의 책, 91쪽.

선교의 사역을 추동하는 힘은 예배 때 그들이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이런 체험을 통해 그들은 역동적인 사회선교사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의 범위는 가뭄, 홍수,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 활동 뿐 아니라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사역, 경제발전 프로젝트, 의료서비스 제공, 상담 시행 등이 포함될 만큼 아주 광범위하다. 이렇게 선진적 성령운동교회는 예수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며, 성령체험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마을목회의 훌륭한 모델이 된다고 하겠다.

4. 한국의 한남제일교회

1) 한남제일교회의 꿈

한남제일교회의 꿈은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선교하는 예수공동체가 되는 것이다.⁴⁷⁾ 오창우 목사가 37년 전 디스코텍, 술집 유흥가 동네였던 열악한 환경의 한남동에 있는 한남제일교회에 1985년 12월에 부임했을 때 한남제일교회는 주민들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지역의 섬처럼 되어버린 교회였다. 그래서 오목사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12월 초 불우이웃돕기 쌀부대를 가지고 동장을 찾아갔고, 수혜자를 선정하고, 분배하는 일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였지만 나눔행사는 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효도관광,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용산한가족결연사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도 동사무소가 앞장을 섰고, 교회는 준비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동장은 “교회 때문에 동네가 복을 받게 되었다”며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목사는 지역사회와 유리되었던 전통적인 교회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고, 교인만을 돌보는 전통적인 목회를 교인과 마을을 함께 돌보는 마을목회로 전환함으로써 한남제일교회는 지역의 자람이 되기 시작했다.⁴⁸⁾

2) 사역의 특징

한남제일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교적 교회와 마을교회로 천명한다. 이에 따라 한남제일교회는 교회 안의 교인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목회의 영역으로 인

47) http://h1ch.net/bbs/board.php?bo_table=0101&frame=&page=3

48) 오창우, 「한남제일교회 마을목회」, 미간행자료집, 64-72쪽.

식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을목회를 지향한다. 한남제일교회의 마을목회는 나눔, 공유, 참여라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역은 크게 네 가지, 즉 ① 복지시설 위탁운영, ② 공홀사역, ③ 이주민사역, ④ 마을공동체사업 참여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복지시설 위탁운영에는 구립한남노인요양원, 구립 한남어린이집, 드림 방과후 교실, 문화교실(한남동오케스트라, 바이올린교실, 플룻교실, 첼로교실, 영어교실) 등이 있고, 둘째로, 공홀사역에는 용산한가죽결연사업, 용산푸드마켓-뱅크 운영 참여, 지역주민초청 효도관광, 절기 구제 등이 있다. 셋째로, 이주민사역에는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센터, 인터내셔널처치, 이주민, 난민사역, 작은 도서관 협력사업, 사론의 집 등이 있다. 넷째로, 2017-2019년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활동에는 부모커뮤니티 활성화지원 사업, 이웃만들기 사업, 마을미디어 사업,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마을과 함께 하는 학교모임 지원사업, 주민모임 연합사업, 한꿈봉사단 등이 있다.⁴⁹⁾ 이외에도 아동부, 중고등부, 제직 부서 등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남제일교회의 마을목회는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한남제일교회는 선교적 교회, 마을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다. 둘째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을 처음부터 주민센터, 구청, 서울시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전개했고,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셋째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그 필요에 응답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며, 한남동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려고 하였다.

5. 위 사례들에 나타난 마을목회의 공통점

첫째로, 위 교회들의 공통점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나라 구현을 목표로 하는 예수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마25장 말씀에 따라 철저히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다. 셋째로,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교인과 함께 마을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다. 넷째로, 선교는 교회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가 곧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로, 인간의 영적인 요구와 물질적 요구를 분리하고, 개인적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전통적 교회의 이원적인 입장이 아니라 영적 구원과 육체적 치유와 회복, 내면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 모두를 교회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통전적 신학, 공공신학의 입

49) 위의 자료집, 3-12, 41쪽.

장을 보여주고 있다.

V. 마을목회의 과제⁵⁰⁾

1.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영성목회의 과제

첫째로, 예수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마을목회는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마을 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꿈꾸는 영성목회⁵¹⁾의 과제를 가진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사회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지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상실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도 상실하고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다시금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의 목회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구현을 꿈꾸는 영성목회를 마을목회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2.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목회의 과제

둘째로, 하나님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나라이고, 그 은혜가 흘러갈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⁵²⁾.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사건이며 동시에 현재의 실재”⁵³⁾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선물을 현재 선취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축복의 즐거움(행복)을 누리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하나님나라 구현을 꿈꾸는 기독교의 목회는 무엇보다 교회공동

50) 본 논문의 5장은 다음의 책 4장의 내용을 축약한 것임. 정원범, 『세상 속 하나님나라 공동체』 (논산: 대장간, 2021) 129-136쪽.

51) 김난예·정원범, 『공동체 영성의 향기』 (논산: 대장간, 2019), 169-176쪽.

52)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195.

53) Glen H. Stassen and David Gushee,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2012), 36쪽.

체를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마을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야 한다.

3. 사회적 약자를 온갖 억압과 착취와 불의에서 자유하게 하는 해방목회의 과제

셋째로, 마을목회는 마을의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모든 억압과 착취와 온갖 불의에서 자유하게 하는 해방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 곧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사야에서 하나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억압과 불의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며 죄, 죽음, 전쟁과 노예 상태, 속박과 포로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한다.”⁵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으로 하셨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 18-19)는 취임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유와 해방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핵심이 바로 자유와 해방의 역사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구현을 꿈꾸는 마을목회는 하나님의 통치, 곧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해방의 사역은 말할 것 없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과 착취와 온갖 불의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 하게 하는 해방의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⁵⁶⁾

54) George Eldon Ladd,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pp.207-217.

55) Glen H. Stassen, David Gushee,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47쪽.

56) WCC 선교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값 없는 생명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이상승배 수준의 거만함, 불공평한 제조, 독재정치, 현 세계 경제질서 속에 있는 착취와 대결하도록 한다. 경제와 경제적 정의는 창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에 닿아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문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통전적 선교이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편,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82; 김영동, “WCC 새로운 선교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의 한국적 적용,” 『선교와 신학』 34집 (2014, 가을호), 28쪽]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우리의 선교신학” 문서는 선교를 통전적 선교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온전한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전도와 정치와 경제적 정의 실현과 자유와 평화의 구현 및 환경보호나 창조세계의 보존 등을 포함한다.” <황홍렬 편저, 『에큐메니칼 협력선교: 정책, 사례, 선교신학』 (부산: 부산장신대학교 세계선교연구소, 2015), 33쪽.>

4.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과제

넷째로, 예수의 사역이 그러했듯이 마을목회는 우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공동체 회복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과 피조물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목회는 근본적으로 공동체목회이다. 본회퍼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을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았는데 말하자면 창조를 공동체의 출현으로, 타락을 공동체의 파괴로, 구원을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⁵⁷⁾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의 목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파편화된 마을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마을로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마을목회는 마을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평화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롬14:17)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에서 공관복음은 이사야 42:1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 42:1-7의 말씀은 종의 사명에서 정의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사야서에서 정의는 네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①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그들이 늘 경험하는 불의로부터 건져 내는 것, ② 권세자의 힘센 발을 그들이 내리누르는 고통 받는 사람의 목에서 치우는 것, ③ 폭력을 중지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④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이방인들, 유랑자들, 도피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는 것 등이다. 정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체다카’란 억압받는 자를 구출하고 풀어주는 정의, 곧 해방하는 정의와 힘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정당한 지위로 복권하는 정의, 곧 공동체 회복의 정의를 의미한다.⁵⁸⁾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마을을 정의롭고 평화로운 마을⁵⁹⁾로 만드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7)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서울: 킹덤북스, 2015), 384쪽.

58) Glen H. Stassen, David Gushee,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65-66쪽, 467쪽.

WCC 선교문서인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정의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교적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선교영성은 경제와 정치 안에서 심지어 우리의 교회들 안에라도 생명을 파괴시키는 가치와 제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 저항하고 변혁을 추구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편,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82쪽.)

59)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살롬으로 이해하는 호케다이크는 살롬이 결국 인간화라고 주장한다. “살롬은 사회적 사건이며,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사람들 간의(co-humanity)모험이다. ... 그것은 반드시 현실 세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또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적절한 살롬(부적절한 살롬은 살롬이 아니다.)은 오직 실제적인 협력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 시도될 수 있고, 또한 성취될 수 있다.” “살롬은 언제나 사람들 간의 이야기이다. ... 살롬은 세 가지 지평 안에서 일어난다. ... 우리는 삶, 의(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경청한다. 미래가 아닌, 우리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세속 세계에서 ‘살롬화’(shalomatizing)의

5.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랑목회의 과제

다섯째로, 마을목회는 마을 속에서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랑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하고 구원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채우며, 단절을 극복하고, 적대성을 종결짓고, 이기주의와 집단 이권에서 세상을 해방시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영역과 생활 영역을 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으로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들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표징 안에서 새로운 공동생활의 토대이며 시작이다.”⁶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르침에서 사랑의 의미에 관한 네 가지 강조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① 사랑은 공훈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속박된 사람들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② 사랑은 구원하는 행위를 한다. ③ 사랑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공동체로 초대한다. ④ 사랑은 소외된 사람들을 거절하는 자와 그들이 선호하는 세속적인 가치들, 즉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교회성장주의, 성직주의 등과 맞서게 한다.⁶¹⁾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착구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생활의 개시이며 질적으로 새로운 행동 예로의 해방이다.”⁶²⁾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통해 깨어진 마을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의 마을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6. 마을의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돌보는 복지목회의 과제

여섯째로, 마을목회는 마을의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돌보는 복지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마 25:31-46)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돌봄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세계가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된 적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18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지평은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표이며 목적일 것이다.”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림: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집(2009), 261-262쪽. 재인용.)

60) Hans-Joachim Kraus, 박재순 역, 『조직신학』, (서울: 신학연구소, 1986), 21쪽.

61) Glen H. Stassen, David Gushee, 신광은, 박종금 역,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447-460쪽.

62) Hans-Joachim Kraus, 박재순 역, 『조직신학』, 22-23쪽.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반면 가장 부유한 1%의 인구는 가장 가난한 사람 57%의 수입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액수의 돈을 번다.”⁶³⁾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 구조적으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폭력적인 생명 죽음의 세계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신 24:19)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고 돌보는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억압과 소외를 당하지 않고, 경제적 고통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의 금융, 조세, 노동, 농업, 복지정책 등이 개선”⁶⁴⁾되도록 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복지목회 또는 복지선교의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적 기업으로는 열매나눔재단⁶⁵⁾이 창업한 메자니아이팩(새터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포장용 박스를 생산하는 1호 희망공장), 메자니아코원(새터민 등을 고용하여 블라인드와 커튼을 생산하는 2호 희망공장), 고마운 손(새터민과 불우한 자들을 고용하여 지갑, 핸드백, 잡화류를 생산하는 3호 희망공장)과 4호, 5호 희망공장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이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 ‘나섬공동체 외국인지원사업단’ 등이 있다.⁶⁶⁾

또한 최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으로는 예장 총회가 2015년에 “반생명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상처받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과 협동의 활동으로 치유하고 화해하는 생명공동체를 형성”⁶⁷⁾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온생명생활협동조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안사회 운동으로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훌륭한 마을목회요, 하나님의 선교라 하겠다.

63) Jean Ziegler, 양영란 역,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2009), 36쪽.

6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편저, 『디아코니아·사회선교 정책문서 자료집』 (서울: 동연, 2016), 38쪽.

65) 높은뜻송의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목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과 탈북자들에게 회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복지단체이다.

66) 조용훈,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서울: 동연, 2017), 294-298쪽.

67) http://onlifecoop.or.kr/page_TXjX6013

7. 마을의 생태계를 살리는 생태목회의 과제

일곱째로, 마을목회는 마을의 생태계를 살리는 생태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과 육을 포함하는 구원이고, 사회와 자연 만물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골 1:20)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한 결과 오늘날 지구세계는 곳곳에서 홍수, 가뭄, 폭염 등 심각한 기후재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막지 않으면 인간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지구마을의 생태계를 살리고 돌보는 지구정원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8. 마을 속에 생명·평화의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목회의 과제

여덟째로, 마을목회는 마을 속에 생명·평화의 문화를 꽃피우는 문화목회의 과제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문화를 몰아내고, 풍성한 생명과 평화의 문화를 꽃피우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자살, 극심한 빈곤 상황, 가정공동체와 사회공동체의 해체, 테러와 전쟁, 대량살상 무기와 핵무기, 유전자조작과 생명복제, 억압과 착취 등이 만연하고 있는 반생명적인 죽음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을목회는 죽음의 문화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생명·평화의 문화로 바꾸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21세기 미래학자이며 영성학자인 레너드 스윗은 2006년에 “유럽교회는 이미 박물관 교회로 전락했고, 미국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에서 점차 박물관교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로 변모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그가 다시 평가한다면 한국교회 역시 박물관교회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것 같다.

이러한 교회 위기 시대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마을목회이다. 왜냐하면 마을목회는 개신교의 위기를 초래한 두 가

지 원인, 즉 교회 본질의 상실과 목회패러다임 전환의 실패에 대한 좋은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목회는 교회 본질의 핵심 요소인 예수와 하나님나라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회이며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는 목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개신교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개신교가 종교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개신교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사회통합 기능, 사회적 목표의 고양, 사회변혁 기능과 같은 개신교의 순기능, 예를 들면 한국교회 선교 초기역사에서 보여주었던 개신교의 순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을목회가 이와 같은 개신교의 순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 개신교는 마을목회를 통해 한국사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고문헌

- 강성열·백명기 편(2016),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서울: 한들출판사.
- 공적신학과 교회연구소 편(2015),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서울: 킹덤북스.
- 김난예·정원범(2019), 『공동체 영성의 향기』. 논산: 대장간.
- 김병서(1995), 『한국사회와 개신교』. 서울: 한울아카데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편저(2016), 『디아코니아·사회선교 정책문서 자료집』. 서울: 동연.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2012),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아카데미』.
-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편(2013), 『세계교회협의회 신학을 말한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예장마을만들기네트워크(2016), 「마을만들기를 위한 신문자료집」, 홍성: 마을목회연구회 「농촌」.
- 오창우, 「한남제일교회 마을목회」. 미간행자료집.
- 오필승 편(2017), 『마을목회신학과 실천』. 홍성: 예장마을만들기네트워크.
- 유성준(2005),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 유성준(2006), 『세이비어교회-실천편』. 서울: 평단문화사.
- 이상훈(2015), 『Re_Form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이원규(1991), 『종교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정원범(2016), 『새로운 교회운동: 교회 패러다임의 혁명』. 논산: 대장간.
- 정원범(2021), 『세상 속 하나님나라 공동체』. 논산: 대장간.
- 조용훈(2017), 『마을공동체와 교회공동체』. 서울: 동연.
- 해석학연구소·농어촌연구소 편(2013), 『마을만들기와 생명선교』. 서울: 한들출판사.
- 황홍렬 편저(2015), 『에큐메니칼 협력선교: 정책, 사례, 선교신학』. 부산: 부산장신대
학교세계선교연구소.
- Gibbs, Eddie. 임신희 역(2003), 『Next church』.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Gruchy, John W. de ed(1999), *The Cambridge Companion to Dietrich Bonhoeff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sley, Richard A., *Jesus and Empire: The Kingdom of God and New World Disorder*, 김
준우 역(2004), 『예수와 제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Kraus, Hans-Joachim, 박재순 역(1986), 『조직신학』. 서울: 신학연구소.
- Ladd, George Eldon(1974), *The Presence of the Future: The Eschatology of Biblical Realism*,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Leech, Kenneth, *The Social God*. 신현기 역(2009), 『사회적 하나님』. 서울: 청림출판.
- O'dea, Thomas F, 권규식 역(1980), 『종교사회학입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Miller, Donald E, 야마모리 테쓰나오. 김성건, 정종현 역(2008), 『왜 섬기는 교회에
세계가 열광하는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 Philip, Clayton, 이세형 역(2012), 『신학이 변해야 교회가 산다』. 서울: 신앙과지성사.
- Rasmussen, Larry L(1972), *Dietrich Bonhoeffer: Reality and Resistance*.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Press.
- Stassen, Glen H. and Gushee, David. 신광은, 박종금 역(2012), 『하나님의 통치와 예
수 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 Ziegler, Jean. 유영미 역(201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 서울: 갈라파
고스.
- Ziegler, Jean. 양영란 역(2009),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 김영동, “WCC 새로운 선교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의 한국적 적용,” 『선교와 신
학』 34집 (2014, 가을호), 28쪽.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림: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24집(2009), 261-262쪽. 재인용.

황영모·이현민,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현황과 활성화 전략 정책의 통합·연계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슈브리핑』 vol.150, (전주: 전북연구원, 2016), 4-5쪽.

「LA중앙일보」, 2005.3.4.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81079.html>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479>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9545136>

<https://www.yna.co.kr/view/AKR20190308111000002>

<https://yum8209.wordpress.com/2013/10/29/%EB%A7%88%EC%9D%84%EB%A7%8C%EB%93%A4%EA%B8%B0%EC%9D%98-%EB%B0%B0%EA%B2%BD/>

<https://inwardoutward.org/>

www.ct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1

http://h1ch.net/bbs/board.php?bo_table=0101&frame=&page=3

http://onlifecoop.or.kr/page_TXjX6013

Abstract

The Role of the Protestant Church in the Village Community - Focusing on Village Ministry -

Chung, WonBum

(Former Professor at 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ole of Protestantism is emerging in the local community, centering on village ministry, which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pastoral ministry in the 21st century amid the crisis of Korean Protestant churches.

For this purpose, I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village ministry in chapter 2, and presenting the theological basis for village ministry in chapter 3. In chapter 4, I will examine the role of village ministry in the local community through representative examples of the world. In chapter 5, the task of village ministry will be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In chapter 2, I explained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village ministry: ① the decline of mainstream established churches ② the collapse of the community due to social polarization ③ ecological and climate crises.

In chapter 3, defining “village ministry” as “a ministry that embodies the kingdom of God or the values of the kingdom of God, (freedom, equality, life, justice, love, peace, etc.)” I presented ① the basis of doctrine of God ② christological basis ③ ecclesiastical basis ④ missiological basis as the theological basis of village ministry.

In chapter 4, through the representative cases of village ministry in the world, that is, ① Savior Church in America ② Dream Center in America ③ Advanced Spirit Movement Churches in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④ Hannam Jail Church in Korea, I explained the role of village ministry in the local community. And I have identified what the ministries of these churches have in common.

In chapter 5, I presented the tasks of village ministr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as follows: ① The task of spiritual ministry that dreams of realizing the kingdom of God ② The task of the Happy Ministry to make the village happy ③ The task of the Liberation Ministry to set the socially weak free from all kinds of oppression, exploitation and injustice ④ The task of creating a just and peaceful

village community ⑤ The task of the ministry of love to achieve healing and reconciliation ⑥ The task of the welfare ministry to save and care for the poor in the village ⑦ The task of the ecological ministry to save the ecosystem ⑧ The task of the cultural ministry to blossom a culture of life and peace

Village ministry is considered to be a good remedy for the two causes of the crisis of Protestantism, namely, the loss of the church's essence and the failure of the pastoral paradigm shift. This is because village ministry is a ministry that want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for the kingdom of God of Jesus, a key element of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inistry that properly responds to the changes of the new age. In addition, village ministry is performing the positive functions of religion, such as social integration, promotion of social goals, and social transformation. Therefore, the Korean church, which is in crisis of Protestantism, will have to make a paradigm shift from the church-centered ministry of the past to a community-centered village ministry.

Key words : Village ministry, Jesus' Kingdom movement, Village community,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Spiritual ministry, Happy ministry, Liberation ministry, Ecological ministry

토론문

정원범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논찬

강 성 열
호남신학대학교 신학과

코로나 시국을 전후로 하여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 위기의식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출산율 저하와 맞물려 있는 청소년층의 기독교 인구 감소 추세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타개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윤리와 도덕의 회복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이 정답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의 교회 내적인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외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다.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공적인 역할 역시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지역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가려는 마을 만들기 내지는 마을 살리기 차원의 마을목회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거룩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마을목회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로 하여금 심기일전하여 지역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지역 주민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교회가 마을과 지역사회를 향하여 열린 공동체가 되어 마을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됨으로써, 기존의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교회 갱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종교

의 역할”을 총괄 주제로 하는 2022년 상반기 학술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것은 자못 의미심장한 일이다. 기독교와 불교 및 원불교를 대표하는 발표자들이 본 총괄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발표했는 바, 기독교인인 논찬자에게는 기독교 쪽 발표 논문에 대한 논평 과제가 주어졌다. 우선은 발표자의 논문 부제목이 “마을목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찬자는 발표자가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있다고 본다. 발표자가 마을목회의 출현 배경과 그 의미 및 신학적인 근거, 그리고 마을목회의 세계적 사례 등을 살핀 후, 마지막으로 마을목회의 여덟 가지 과제를 상세하게 논의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접근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찬자는 발표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편이다. 논찬자 본인 역시 마을목회와 관련된 세미나들을 여러 차례 기획했었고 그 결과물을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발표자의 논문에서 몇 가지 아쉬운 대목도 없잖아 있다.²⁾ 첫째로 발표자의 논문은 한국교회가 마을목회를 절박하게 요청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한국교회의 마을목회 사례는 한 군데 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서울에 있는 한남제일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보니,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마을목회 사례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논찬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도 성공적인 마을목회 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한국교회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다른 나라의 마을목회 성공 사례들보다는 차라리 한국의 대도시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마을목회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둘째로 발표자의 논문은 다분히 원론적인 측면에서 마을목회의 적절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을목회의 세계적인 사례 소개에서 보듯이, 자립교회만의 마을목회 사역에 치중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교회의 70~80%가 자립대상교회(=미자립교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자립교회의 마을목회 못지않게 자립대상교회의 마을목회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바, 발표자의

1) 강성열 엮음, 『농어촌 선교현장과 생명목회』(2008년 4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농촌 살리기와 생명선교』(2011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마을 만들기와 생명선교』(2013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 엮음,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운동』(2014년 5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2016년 11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마을목회, 세상 속으로』(2017년 11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아웃리치를 통한 도농교회 협력과 상생』(2018년 11월, 한들출판사); 강성열·백명기 엮음,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과 농촌기본소득』(2019년 11월, 한들출판사).

2) 6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라는 표현은 삭제하거나 “표 2”를 추가함이 옳을 것이다.

논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대채 방안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마을목회 성공 여부는 도시나 농어촌지역의 자립교회들이 그렇지 못한 자립대상교회들로 하여금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고전 12:12-27) 자립교회와 자립대상교회가 건강한 동반성장의 길을 건도록 상생 협력 구조를 갖추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아웃리치(outreach) 사역³⁾이 그렇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아웃리치 사역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자립대상교회의 마을목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요, 뒤떨리고 왜곡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사람의 몸과 같은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성서가 강조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정신에 크게 부합되는 것이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가? 그 까닭은 성서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상생 공존을 강조하며, 높은 것을 낮아지게 만들고 낮은 것을 높아지게 만듦으로써(사 40:4; 눅 3:5)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발표자의 주장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지역 공동체를 세우는 마을목회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러한 깨달음을 적극 실천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을목회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준 발표자의 귀한 논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논찬을 마친다.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강성열·백명기 엮음, 『아웃리치를 통한 도농교회 협력과 상생』 (2018년 11월, 한들출판사).